



## 남자 고등학생의 성격과 흡연행태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Typology and Smoking in High School Students

---

|                    |                                                                                                                                                                        |
|--------------------|------------------------------------------------------------------------------------------------------------------------------------------------------------------------|
| 저자<br>(Authors)    | 강복수, 이미숙, 이경수, 황태윤, 박종서, 이중정<br>Pock-Soo Kang, Mi-Suk Lee, Kyeong-Soo Lee, Tae-Yoon Hwang, Jong-Seo Park, Jung-Jeung Lee                                               |
| 출처<br>(Source)     | <a href="#">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2(1)</a> , 2005.3, 135-146 (12 pages)<br><a href="#">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2(1)</a> , 2005.3, 135-146 (12 pages) |
| 발행처<br>(Publisher) | <a href="#">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a><br>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
| URL                |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0962813">http://www.dbpia.co.kr/Article/NODE00962813</a>                                                                  |
| APA Style          | 강복수, 이미숙, 이경수, 황태윤, 박종서, 이중정 (2005). 남자 고등학생의 성격과 흡연행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2(1), 135-146.                                                                                  |
| 이용정보<br>(Accessed) | 계명대학교<br>114.71.4.130<br>2016/07/08 11:01 (KST)                                                                                                                        |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남자 고등학생의 성격과 흡연행태

강복수\* · 이미숙\*\* · 이경수\* · 황태윤\* · 박종서\* · 이중정\*\*\*

\*영남의대 예방의학교실 ·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계명의대 예방의학교실

###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청소년 흡연은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흡연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994년 26%에서 1997년 35%로 상승하였다. 최근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율이 2000년 27.6%, 2002년 23.9%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그 수치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3세 이전 어린이들의 조기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보건학적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박명윤, 1998;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3).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기에 시작하는 흡연보다 더 쉽게 니코틴 중독에 빠질 수 있어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금연을 시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향후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서일 등, 1988).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성적향상, 이성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흡연행위와 같은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원호택과 이민규, 1987). 또한 고등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를 피우게 되고,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심각하면 할수록 흡연정도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해숙 등, 1989; 주혜경, 1994).

Eysenck(1973)의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 성격 및 상황적 요소가 흡연습관을 유지하

교신저자: 강복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317-1 영남의대 예방의학교실 705-717

전화번호: 053-620-4372, E-mail: pskang@med.yu.ac.kr

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개인마다 서로 다른 성격이 개인의 흡연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요인 및 강화하는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해 흡연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흡연 경험, 흡연유무, 흡연횟수 등과 같은 일반적인 흡연실태의 파악과 함께 흡연과 관련된 가정과 학교 및 사회 환경 등과 같은 외적 요인을 조사,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흡연이 개인의 내적 요인인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일부 시행되고 있다(이기학과 한종철, 1996; 이수연과 전은영, 2001; 이상균, 2002; 이은현 등, 2003). 외국에서는 다면인성검사나 다른 신경인지기능 등을 이용하여 성격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와 흡연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Winefield 등, 1992; Patton 등, 1997; Black 등, 1999; Dinn 등, 2004), 우리나라에서는 성격유형과 흡연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며,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를 시행한 사례는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부 남자고등학생들의 일반적인 흡연 실태를 파악하고, 흡연 상태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를 비교하며, 성격유형과 흡연경험 및 현재 흡연여부와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흡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격유형을 파악하였다.

## II. 연구방법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4개 남자고등학교 12개 학급 48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인

문계 고등학생이 240명, 실업계 고등학생이 242명이었다. 2003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 달간 담임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각 반의 대표를 통해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내용이 불완전한 34명을 제외한 44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내용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흡연 경험 및 현재 흡연 여부, 스트레스 정도, 성격특성 등이었다. 흡연 경험 및 현재 흡연 여부 등 흡연상태는 세계보건기구(WHO, 1998)에서 제시한 설문을 이용하여 파악하였고, 스트레스의 측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BEPSI 척도(배종면 등, 1994)를 사용하였으며, 성격유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한국판 Eysenck 성격검사 도구(이현수, 2004)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는 BEPSI 척도는 Cronbach  $\alpha$  값이 0.841, Eysenck 척도는 Cronbach  $\alpha$  값이 0.855였다.

수집된 자료의 정리와 분석은 SPSS ver.12.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chi^2$ -검정, t-검정 및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 III.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구성은 인문계 남자고등학생이 220명,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이 228명이었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225명(50.2%), 3학년이 223명(49.8%)이었다. 종교는 인문계의 경우 기독교가 23.6%, 실업계의 경우 불교가 33.8%로 가장 많았고( $p < 0.01$ ), 주관적인 학교성적은 인문계는 중상위권 학생들, 실업계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았으며( $p<0.01$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인문계는 불만족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고, 실업계는 상대적으로 불만족을 느낀다는 응답이 적었다( $p<0.01$ ). 가족관련 특성으로 주관적 경제상태가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4.7%이

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가 인문계는 94.9%, 실업계는 83.8%였으며, 어머니만 있는 경우가 인문계는 1.4%, 실업계는 11.4%로 계열 간에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p<0.01$ )(표 1).

가족의 흡연상태는 조부모가 모두 흡연을 하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 단위: 명(%)   |            |            |
|------------|---------|------------|------------|------------|
| 구 분        |         | 인문계        | 실업계        | 계          |
| 학 년        | 2학년     | 112(50.9)  | 113(49.6)  | 225(50.2)  |
|            | 3학년     | 108(49.1)  | 115(50.4)  | 223(49.8)  |
| 종 교**      | 기독교     | 52(23.6)   | 43(18.9)   | 95(21.2)   |
|            | 불교      | 38(17.3)   | 77(33.8)   | 115(25.7)  |
|            | 천주교     | 3( 1.4)    | 0( - )     | 3( 0.7)    |
|            | 이슬람교    | 17( 7.7)   | 14( 6.1)   | 31( 6.9)   |
|            | 기타      | 4( 1.8)    | 0( - )     | 4( 0.9)    |
|            | 무교      | 106(48.2)  | 94(41.2)   | 200(44.6)  |
| 주관적 학교성적** | 상위권 30% | 79(35.9)   | 28(12.3)   | 107(23.9)  |
|            | 중위권 40% | 88(40.0)   | 96(42.1)   | 184(41.1)  |
|            | 하위권 30% | 53(24.1)   | 104(45.6)  | 157(35.0)  |
| 학교생활만족도**  | 매우만족    | 5( 2.3)    | 4( 1.8)    | 9( 2.0)    |
|            | 만족      | 53(24.1)   | 56(24.6)   | 109(24.3)  |
|            | 보통      | 75(34.1)   | 128(56.1)  | 203(45.3)  |
|            | 불만족     | 52(23.6)   | 21( 9.2)   | 73(16.3)   |
|            | 매우불만족   | 35(15.9)   | 19( 8.3)   | 54(12.1)   |
| 주관적 경제상태   | 상       | 9( 4.1)    | 2( 0.9)    | 11( 2.5)   |
|            | 중       | 165(75.0)  | 170(74.5)  | 335(74.7)  |
|            | 하       | 46(20.9)   | 56(24.6)   | 102(22.8)  |
| 부모 동거 여부** | 부       | 7( 3.2)    | 11( 4.8)   | 18( 4.0)   |
|            | 모       | 3( 1.4)    | 26(11.4)   | 29( 6.5)   |
|            | 부모      | 209(94.9)  | 191(83.8)  | 400(89.3)  |
|            | 무       | 1( 0.5)    | 0( - )     | 1( 0.2)    |
|            | 계       | 220(100.0) | 228(100.0) | 448(100.0) |

\*\*  $p<0.01$ .

지 않는 경우가 인문계와 실업계 모두 54% 정도였으며, 부모가 모두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인문계 48.2%, 실업계 43.4%였다. 형제자매 중 흡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인문계 95.4%, 실업계 72.5%였으며( $p<0.01$ ), 주위 친구들이 모두 흡연을 하는 경우가 인문계는 3.6%, 실업계는 16.7%였고, 주위 친구들 대부분이 흡연을 하는 경우가 인문계는 7.3%, 실업계는 36.8%이었다( $p<0.01$ )(표 2).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은 인문계 30.9%, 실업계 69.1%였으며,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은 인문계 2.7%, 실업계 56.6%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흡연 경험과 현재 흡연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스트레스 점수는 인문계와 실업계 모두에서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와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에서 근소하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3, 4).

성격유형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낮은 군과 높

<표 2> 가족과 친구의 흡연상태

단위: 명(%)

| 구 분          | 인문계        | 실업계        | 계          |
|--------------|------------|------------|------------|
| 조부모          |            |            |            |
| 모두 비흡연       | 118(53.6)  | 125(54.8)  | 243(54.2)  |
| 할아버지만 흡연     | 72(32.7)   | 62(27.2)   | 134(29.9)  |
| 할머니만 흡연      | 16( 7.3)   | 25(11.0)   | 41( 9.2)   |
| 두 분 모두 흡연    | 14( 6.4)   | 16( 7.0)   | 30( 6.7)   |
| 부모           |            |            |            |
| 모두 비흡연       | 106(48.2)  | 99(43.4)   | 205(45.8)  |
| 아버지만 흡연      | 106(48.2)  | 123(54.0)  | 229(51.1)  |
| 어머니만 흡연      | 1( 0.4)    | 1( 0.4)    | 2( 0.4)    |
| 두 분 모두 흡연    | 7( 3.1)    | 5( 2.2)    | 12( 2.7)   |
| 형제/자매**      |            |            |            |
| 모두 안 함       | 210(95.4)  | 165(72.5)  | 375(83.7)  |
| 형/누나만 흡연     | 5( 2.3)    | 40(17.5)   | 45(10.0)   |
| 동생들만 흡연      | 2( 0.9)    | 1( 0.4)    | 3( 0.7)    |
| 모두 흡연        | 3( 1.4)    | 22( 9.6)   | 25( 5.6)   |
| 친구**         |            |            |            |
| 모두 함         | 8( 3.6)    | 38(16.7)   | 46(10.3)   |
| 대부분 함        | 16( 7.3)   | 84(36.8)   | 100(22.3)  |
| 흡연 친구가 약 50% | 35(15.9)   | 50(21.9)   | 85(19.0)   |
| 대부분 안 피움     | 112(50.9)  | 30(13.2)   | 142(31.7)  |
| 모두 안 함       | 49(22.3)   | 26(11.4)   | 75(16.7)   |
| 계            | 220(100.0) | 228(100.0) | 448(100.0) |

\*\*  $p<0.01$ .

&lt;표 3&gt; 대상 학생들의 흡연 경험을 및 현재 흡연을

단위: 명(%)

| 구 분       |         | 인문계        | 실업계        | 계          |
|-----------|---------|------------|------------|------------|
| 흡연경험 여부** | 흡연경험 없음 | 152(69.1)  | 70(30.7)   | 222(49.6)  |
|           | 흡연경험 있음 | 68(30.9)   | 158(69.3)  | 226(50.4)  |
| 현재 흡연**   | 비흡연     | 199(90.5)  | 99(43.4)   | 298(66.5)  |
|           | 현재 흡연   | 21( 9.5)   | 129(56.6)  | 150(33.5)  |
| 계         |         | 220(100.0) | 228(100.0) | 448(100.0) |

\*\* p&lt;0.01.

&lt;표 4&gt; 계열별 스트레스 점수 비교

| 구 분     | 인문계 |            | 실업계 |            |
|---------|-----|------------|-----|------------|
|         | 대상자 | 평균±표준편차    | 대상자 | 평균±표준편차    |
| 흡연경험여부  |     |            |     |            |
| 흡연경험 없음 | 152 | 16.38±3.66 | 70  | 13.80±3.82 |
| 흡연경험 있음 | 68  | 17.34±4.58 | 158 | 14.06±4.79 |
| 현재흡연    |     |            |     |            |
| 비흡연     | 199 | 16.67±3.85 | 99  | 13.45±4.35 |
| 흡연      | 21  | 16.71±5.20 | 129 | 14.39±4.60 |

은 군으로 구분하여 계열별 흡연 경험 여부와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는 정신병적 경향이 낮은 군의 흡연 경험률이 38.2%인 반면 높은 군의 흡연 경험률은 61.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실업계의 경우 외향성 및 정신병적 경향 점수가 낮은 군에서의 흡연 경험률은 각각 36.7%와 33.5%, 높은 군에서의 흡연 경험률은 각각 63.3%와 66.5%로써 외향성 경향 및 정신병적 경향 점수에 따른 흡연 경험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허위성 경향 점수에서는 낮은 군의 흡연 경험률이 65.8%로 높은 군의 흡연 경험률 34.2%에 비하여 높아 다른 성격유형 점수와는 반대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 $p<0.01$ )(표 5). 성격유형과 현재 흡연여부와와의 관련성은 인문계의 경우 정신병적 경향 점수가 낮은 군의 현재 흡연율은 28.6%, 높은 군의 현재 흡연율은 71.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1$ ), 실업계의 경우 외향성과 정신병적 경향 점수가 낮은 군의 현재 흡연율이 각각 38.0%와 30.2%로 높은 군의 62.0%와 69.8%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허위성 경향 점수에 따른 현재 흡연여부는 반대 결과였다( $p<0.01$ )(표 6).

학생들의 흡연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성격유형 및 스트레스 점수를 독립변수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외적인 환경

&lt;표 5&gt; 계열별 성격유형과 흡연경험과의 관련성

단위: 명(%)

| 구 분        | 인문계      |            | 실업계       |            |
|------------|----------|------------|-----------|------------|
|            | 경험군      | 비경험군       | 경험군       | 비경험군       |
| 중독성 경향 점수  |          |            |           |            |
| 낮은 군       | 21(30.9) | 64(42.1)   | 94(59.5)  | 46(65.7)   |
| 높은 군       | 47(69.1) | 88(57.9)   | 64(40.5)  | 24(34.3)   |
| 범죄성 경향 점수  |          |            |           |            |
| 낮은 군       | 27(39.7) | 62(40.8)   | 98(62.0)  | 46(65.7)   |
| 높은 군       | 41(60.3) | 90(59.2)   | 60(38.0)  | 24(34.3)   |
| 외향성 경향 점수  |          |            |           |            |
| 낮은 군       | 40(58.8) | 79(52.0)   | 58(36.7)  | 51(72.9)** |
| 높은 군       | 28(41.2) | 73(48.0)   | 100(63.3) | 19(27.1)   |
| 허위성 경향 점수  |          |            |           |            |
| 낮은 군       | 49(72.1) | 89(58.6)   | 104(65.8) | 24(34.3)** |
| 높은 군       | 19(27.9) | 63(41.4)   | 54(34.2)  | 46(65.7)   |
| 신경증적 경향 점수 |          |            |           |            |
| 낮은 군       | 29(42.6) | 61(40.1)   | 105(66.5) | 46(65.7)   |
| 높은 군       | 39(57.4) | 91(59.9)   | 53(33.5)  | 24(34.3)   |
| 정신병적 경향 점수 |          |            |           |            |
| 낮은 군       | 26(38.2) | 90(59.2)** | 53(33.5)  | 55(78.6)** |
| 높은 군       | 42(61.8) | 62(40.8)   | 105(66.5) | 15(21.4)   |

\*\* p&lt;0.01.

&lt;표 6&gt; 계열별 성격유형과 현재 흡연여부와와의 관련성

단위: 명(%)

| 구 분        | 인문계      |            | 실업계      |            |
|------------|----------|------------|----------|------------|
|            | 흡연군      | 비흡연군       | 흡연군      | 비흡연군       |
| 중독성 경향 점수  |          |            |          |            |
| 낮은 군       | 6(28.6)  | 79(39.7)   | 74(57.4) | 66(66.7)   |
| 높은 군       | 15(71.4) | 120(60.3)  | 55(42.6) | 33(33.3)   |
| 범죄성 경향 점수  |          |            |          |            |
| 낮은 군       | 7(33.3)  | 82(41.2)   | 76(58.9) | 68(68.7)   |
| 높은 군       | 14(66.7) | 117(58.8)  | 53(41.1) | 31(31.3)   |
| 외향성 경향 점수  |          |            |          |            |
| 낮은 군       | 11(52.4) | 108(54.3)  | 49(38.0) | 60(60.6)** |
| 높은 군       | 10(47.6) | 91(45.7)   | 80(62.0) | 39(39.4)   |
| 허위성 경향 점수  |          |            |          |            |
| 낮은 군       | 16(76.2) | 122(61.3)  | 90(69.8) | 38(38.4)** |
| 높은 군       | 5(23.8)  | 77(38.7)   | 39(30.2) | 61(61.6)   |
| 신경증적 경향 점수 |          |            |          |            |
| 낮은 군       | 9(42.9)  | 81(40.7)   | 83(64.3) | 68(68.7)   |
| 높은 군       | 12(57.1) | 118(59.3)  | 46(35.7) | 31(31.3)   |
| 정신병적 경향 점수 |          |            |          |            |
| 낮은 군       | 6(28.6)  | 110(55.3)* | 39(30.2) | 69(63.7)** |
| 높은 군       | 15(71.4) | 89(44.7)   | 90(69.8) | 30(30.3)   |

\* p&lt;0.05, \*\* p&lt;0.01.

요인인 부모흡연( $p<0.05$ ), 형제자매 흡연( $p<0.01$ ), 친구흡연( $p<0.01$ )이 현재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실업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친

구흡연, 성격유형 중 외향적 경향과 정신병적 경향이 현재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p<0.01$ )(표 7, 8).

<표 7> 인문계 학생들의 현재 흡연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변 수                | B      | S.E.  | O.R.     |
|--------------------|--------|-------|----------|
| 부모흡연(없음=0, 있음=1)   | 1.566  | 0.719 | 4.785*   |
| 형제자매흡연(없음=0, 있음=1) | 3.279  | 1.086 | 26.558** |
| 친구흡연(없음=0, 있음=1)   | 1.819  | 0.607 | 6.163**  |
| 스트레스 점수            | -0.025 | 0.075 | 0.975    |
| 중독성 경향             | -0.346 | 0.261 | 0.707    |
| 범죄성 경향             | 0.436  | 0.337 | 1.546    |
| 외향성 경향             | 0.141  | 0.095 | 1.152    |
| 허위성 경향             | -0.198 | 0.124 | 0.820    |
| 신경증적 경향            | -0.133 | 0.233 | 0.875    |
| 정신병적 경향            | 0.186  | 0.119 | 1.205    |
| 상수                 | -4.613 | 2.597 | 0.010    |

Nagelkerke  $R^2=0.463$ .

S.E.: standard error.

O.R: odds ratio.

\*  $p<0.05$ , \*\*  $p<0.01$ .

<표 8> 실업계 학생들의 현재 흡연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변 수                | B      | S.E.  | O.R.     |
|--------------------|--------|-------|----------|
| 부모흡연(없음=0, 있음=1)   | 0.455  | 0.423 | 1.575    |
| 형제자매흡연(없음=0, 있음=1) | 1.014  | 0.551 | 2.757    |
| 친구흡연(없음=0, 있음=1)   | 2.957  | 0.741 | 19.241** |
| 스트레스 점수            | 0.003  | 0.049 | 1.003    |
| 중독성 경향             | -0.019 | 0.182 | 0.981    |
| 범죄성 경향             | -0.217 | 0.219 | 0.805    |
| 외향성 경향             | 0.175  | 0.056 | 1.192**  |
| 허위성 경향             | -0.031 | 0.089 | 0.969    |
| 신경증적 경향            | 0.251  | 0.150 | 1.285    |
| 정신병적 경향            | 0.222  | 0.068 | 1.248**  |
| 상수                 | -6.476 | 1.850 | 0.002    |

Nagelkerke  $R^2=0.586$ .

S.E.: standard error.

O.R: odds ratio.

\*\*  $p<0.01$ .

## IV. 논 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을 특히, 이 연구의 대상인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988년에는 23%이었던 것이 1999년에는 32.3%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여자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991년 2.4%이던 것이 2002년에는 17.3%로 빠르게 증가하였다(지선하, 2002). 일부 청소년의 흡연율이 1999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경수, 2002).

이 연구에서 대상자의 흡연경험률은 실업계가 인문계의 2배 이상 높았고, 현재 흡연자 비율도 실업계가 인문계의 6배 정도였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흡연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여 동료학생들의 금연에 대한 권장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실업계 학생의 흡연경험과 현재 흡연율은 미국의 같은 연령 학생들의 흡연 경험률 60.0-65.4% 보다 높았다(CDC, 2004).

부모가 흡연하는 비율은 인문계와 실업계가 각각 51.7%와 56.5%로 비슷하였으나, 형제자매가 흡연하는 비율은 인문계와 실업계가 각각 4.6%와 27.5%, 친구들 중 흡연하는 친구의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경우가 인문계와 실업계 각각 15.9%와 21.9%로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에 비하여 흡연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경 등(2004)에 의하면 현재 흡연, 비흡연 및 흡연중단 청소년 집단 사이에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 친구와의 차

별적 교제, 흡연을 조절할 수 있는 행위통제지각, 흡연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시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및 친구의 금연을 같이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소견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흡연 경험 및 현재 흡연 여부와 스트레스 점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스트레스의 강도가 흡연 경험이나 현재 흡연을 유도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흡연 경험 혹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는 점이 스트레스의 강도를 증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을 할 수는 없으나 인문계와 실업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이 흡연 경험이 있는 군과 현재 흡연을 하는 군이 근소하게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을 측정하는 설문을 이용하여 성격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이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여 흡연 경험 여부와 현재 흡연여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 성격검사는 기준 점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점수를 이용하여 경향을 제시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중앙값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흡연경험 여부와 관련성은 인문계에서는 정신병적 경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실업계의 경우는 외향성 경향, 허위성 경향, 그리고 정신병적 경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흡연 여부와 관련성 분석에서도 흡연경험 여부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의 성격 유형 중 외향성 경향, 정신병적 경향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흡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이들 성격 유형이 강한 학생들을 흡연예방교육의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고집이 세고, 충동적이며, 적개심이 강하고, 감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흡연을 더 많이 한다는 Lipkus 등(1994)의 연구와 외향적이고 신경성 경향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 흡연을 더 많이 한다는 Patton 등(1997)의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류경미 등(2000)은 현재 흡연자에 있어서 히스테리적, 반사회적, 편집증적, 강박증적, 정신병적, 경조증적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고, 서경현과 이석민(2004)에 의하면 금연 프로그램 참가자들 중 1년 안에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보다 정신병 경향이 더 높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실업계 학생들의 경우 성격유형 중 외향성 경향과 정신병적 경향이 현재 흡연에 유의한 요인이라는 결과는 선행 연구(류경미 등, 2000; 서경현과 이석민, 2004; Lipkus 등, 1994; Patton 등, 1997)들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인문계 학생들이 경우는 부모와 형제자매의 흡연, 친구흡연 등이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였고, 실업계 학생들은 친구흡연이 성격유형 외에 유의한 요인이었는데, 이는 흡연을 하는 문화나 환경이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류경미 등(2000)과 이수연과 전은영(2001)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들 사이에 현재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다소 상이한 것은 두 집단의 흡연율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인문계 학생들은 흡연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흡연 학생들에게 가족과 친

구의 흡연 상태가 좀 더 유의한 영향 변수였고, 실업계 학생들은 비교적 쉽게 흡연 환경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성격 유형이 흡연 여부에 유의한 영향 변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친구의 흡연이었는데, 이 점은 성격유형에 대한 고려와 함께 향후 학교금연사업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사업의 전략 개발에 참고가 될 필요가 있다.

Gilbert 와 Gilbert(1995), Zuckerman 과 Kuhlman(2000), 그리고 Kashdan 등(2005)도 흡연과 특정 성격 유형이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서로 다른 성격유형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최근 흡연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기존의 조사 결과(이경수, 2002)를 고려할 때, 조기 흡연예방교육이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이메일 등을 이용한 보건교육 등도 현재의 보건교육의 문제점인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조기 흡연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성격유형 중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외향성 경향과 정신병적 경향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흡연하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성격유형이 흡연시도나 현재 흡연상태를 발생시킨 선행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장기간의 관찰을 통하여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 V. 결 론

대구 지역 4개 남자고등학생(인문계 220명, 실업계 228명)을 대상으로 흡연 경험과 현재 흡연 여부를 파악하고, 성격유형에 따른 흡연 경험 및 현재 흡연 여부를 비교 분석하며,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고자 2003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 달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흡연 경험률은 인문계 학생이 30.8%, 실업계가 69.3%였으며, 현재 흡연율은 인문계 학생이 9.5%, 실업계 학생이 56.6%였다( $p<0.01$ ). 성격유형 점수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낮은 군과 높은 군으로 구분하여 흡연 경험 여부와 현재 흡연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는 정신병적 경향이, 실업계는 외향성 경향과 정신병적 경향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p<0.01$ ). 실업계 학생들의 경우 허위성 경향은 다른 성격 유형과는 반대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현재 흡연여부를 종속변수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인문계의 경우는 부모 흡연, 형제자매 흡연, 친구 흡연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실업계는 친구 흡연 여부, 성격 유형 중 외향성 경향과 정신병적 경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앞으로 조기 흡연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친구가 흡연을 하는 경우, 외향성 경향 또는 정신병적 경향의 성격유형인 학생은 조기 흡연예방교육의 주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흡연의 해악성과 위해성을 교육하고 흡연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접수일자: 2004년 12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3월 12일>

## 참고문헌

- 김희경 외 8명. 흡연 청소년의 신념, 친구교제, 통제력, 흡연 의도 및 자기효능에 대한 비교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4;21(1):197-216.
- 류경미 외 6명. 남자고등학생의 흡연행위군별 성격 특성.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000;26(2):201-214.
- 박명운. 청소년 흡연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 연구 1998;28:95-112.
- 배종면, 안윤옥, 박병주. 대학생 흡연량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1994;27(1):1-10.
- 서경현, 이석민.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장·단기 금연 성공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 탐색.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4;21(1):137-151.
- 서 일 외 5명. 전국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실태. 한국역학회지 1988;10(2):219-229.
- 이경수.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제 54차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경주 교육문화회관. 2002년 10월.
- 이기학, 한종철. 대학생 흡연자의 각성 수준과 상황에 따른 흡연 욕구 및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96;1(1):114-127.
- 이상균. 청소년 흡연행위의 결정요인. 사회복지리뷰 제6집, 2002.
- 이수연, 전은영.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환경적 요인. 청소년학연구 2001;8(1):197-217.
- 이은현, 전기홍, 송미숙, 이순영, 김지윤. 고등학생 흡연과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2003;36(2):131-136.
- 이해숙, 김일순, 서일. 전국 남자 중·고등학생들의 2년간 흡연력의 비교(1988-1989). 한국역학

- 회지 1989;11(2):198-208.
- 이현수.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실시 및 해석을 위한 지침서 2판. 학지사, 2004.
- 원호택, 이민규.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987;6(1):22-32.
- 지선하. 청소년 흡연실태 및 금연의 해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서, 2002.
- 주혜경. 일부 남자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흡연의 관계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4;7(2):105-114.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3년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흡연 실태조사. 청소년흡연율보고서, 2003.
- Black DW, Zimmerman M, Coryell WH. Cigarette smoking and psychiatric disorder in a community sample. *Ann Clin Psychiatry* 1999;11(3):129-136.
- CDC.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cited 2004 May. 21; Available from: URL: <http://www.cdc.gov/mmwr/preview/mmer.html/ss5302a1.htm>.
- Dinn WM, Aycicegi A, Harris CL. Cigarette smoking in a student sample: Neurocognitive and clinical correlates. *Addict Behav* 2004;29(1):107-126.
- Eysenck HJ. Personality and the maintenance of the smoking habit. Winston/Wiley, 1973.
- Gilbert DG, Gilbert BO.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nicotine response as mediators of the genetics of smoking. *Behav Genet* 1995;25(2):133-147.
- Kashdan TB, Vetter CJ, Collins RL. Substance use in young adults: associations with personality and gender. *Addict Behav* 2005;30(2):259-269.
- Lipkus IM, Barefoot JC, Williams RB, Siegler IC. Personality measures as predictors of smoking initiation and cessation in the UNC Alumni Heart Study. *Health Psychol* 1994;13(2):149-155.
- Patton D, Barnes GE, Murray RP. A personality typology of smokers. *Addict Behav* 1997; 22(2):269-273.
- WHO. Guidelines for controlling and monitoring the tobacco epidemic.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8.
- Winefield HR, Winefield AH, Tiggemann M. Psychological attributes of young smokers. *Psychol Rep* 1992;70:675-681.
- Zuckerman M, Kuhlman DM. Personality and risk-tasking: common biosocial factors. *J Pers* 2000;68(6):999-1029.

<ABSTRACT>

##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Typology and Smoking in High School Students

Pock-Soo Kang\* · Mi-Suk Lee\*\* · Kyeong-Soo Lee\* · Tae-Yoon Hwang\*  
Jong-Seo Park\* · Jung-Jeung Lee\*\*\*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 Public Health Studies, Yeungnam University*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A total of 448 male students(220 college-bound students, 228 vocational students) were surveyed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 Daegu from November to December 2003.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attern in cigarette smoking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and related factors to smoking.

Among respondents, 30.8% of college-bound students and 69.3% of vocational students have ever smoked. The rate of current smoking was 9.2% in the college-bound students and 56.6% in the vocational students.

Smoking experience and current smoking statu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in psychotic personality in the college-bound students and in extroversive and psychotic personality in the vocational student group.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moking of parents, siblings, and friends were significant variables on the current smoking in the college-bound students, and smoking of friends and extroversive and psychotic personality in the vocational students.

As a results, this study suggest that those students who have the factors identified in this study regarded as having the potential to start smoking, and they can be subject to anti-smoking programs to help them quell their desire for smoking or delay.

**Key words :** Personality, Smoking, Students